

##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계열주체와 사육농가 상생 발전 하림사육농가협의회 장창훈 회장 & (주)하림 정문성 본부장

글 | 정승일 기자(jsiid@naver.com)



육계계열화 사업은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추진해 현재는 95% 이상의 농가들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해 안정적인 산업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육계 계열화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계열화주체와 농가간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과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도입 기인 1985~1990년대 농가와 계열주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선 시 하기 보다는 육계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육계산업이 안정되면서 농가와 계열주체에 대화창구가 필요했다. 육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열주체와 농가간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계열주체인 (주)하림은 사육농가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창구의 역할을 위해 2005년 6월 3일 600백여명의 사육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주)하림사육농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탄생된 하림사육농가협의회는 4년여 동안 계열주체인 (주)하림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계약 사육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농가와 계열주체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또한 계열주체인 (주)하림도 농가와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농가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처럼 농가와 계열주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수평적 관계에 있다. 농가가 없으면 계열주체가 없고, 계열주체가 없으면 농가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해주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하림사육농가협의회 장창훈 회장과 (주)하림 사육본부 정문성 본부장을 한자리에서 만났다.

**Q** 하림사육농가협회의 탄생 배경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A** 장창훈 회장

농가협회가 출범할 당시 (주)하림은 2003년 5월 12일 익산 도계장 화재 발생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하림 농가들도 자발적으로 도계장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일요일에는 지역농가들이 화재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1년 만에 최고시설을 갖춘 새로운 도계장이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하림과 사육농가가 서로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동반자 관계임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복구 이후 사육농가들의 권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를 조율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치고, 특히 하림 이문용 사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2005년 6월 3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하림사육농가협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Q** 하림사육농가협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 장창훈 회장

하림사육농가협회는 회칙 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림과 사육농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과 농가 수익향상 및 회

원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사양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림사육농가협회가 탄생하자 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장단 3기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회원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양계 사양관리 기술 향상과 농가 경영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으며 회사 역시 농가와의 정기적인 대화 속에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고 판단됩니다.

하림사육농가협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는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대표 18명이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농가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림에서도 회사 경영실적, 이슈사항 등을 정보를 임직원이 참석해 직접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회의를 통해 서로 간 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농가와 회사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주)하림에서는 농가협회에 대해 어떤 지원과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A** 정문성 본부장

하림사육농가협회 창립 이후 사육농가와 회사간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었으며 사육농가의 권익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림사육농가협회 창립 이후 율거리 농가들이 부담했던 물류비 삭제, 혹은

기 연료비 추가지원 및 기준 단가 인상, 시설자금 지원, 그리고 오는 4월부터 VQIS 시행과 함께 품질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하림은 특히 농가의 소득안정 및 증대를 위해 사육규모 확대와 사육환경 개선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하림은 지난 3년 동안 30농가에 100여동의 무창계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품질의 사료와 병아리 공급을 목표로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동절기 및 환절기 전체 농가의 성적이 평균 FCR(사료요구율) 1.59, 생산지수 300이라는 경이적인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성은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대등한 성적으로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와 농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주)하림과 하림사육농가협회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나요?

**A** 장창훈 회장

항상 의견 차이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농가협회 사무실과 하림 사육본부가 이렇게 바로 지척에 있는 것도 얼굴도 자주보고 편하

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실제로 농가협회와 하림 사육본부는 30m 범위 내에 위치해있다).

깎짚비, 연료비, 사료,약품, 병아리, 사육계약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 때나 찾아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원만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A** 정문성 본부장

사실 그동안 육계업계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닭고기 가격결정구조가 너무 낙후되어 생산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날이 너무 많다 보니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AI가 발생하면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지요.

농가는 회사의 한 축이므로 대화를 통한 투명 경영을 실행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하림사육농가협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본사와 협의를 통해 가장 좋은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하림사육농가협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A** 장창훈 회장

가끔 불의의 사고로 양계장에 화재가 나기

도 합니다. 실의에 빠져 있는 농가에 우리 회원들이 같이 방문해 격려해 주고 사육농가협의회가 회사에 건의하여 불에 탄 양계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때 보람이 큼니다.

특히 국내 계열업체 중 유일하게 하림이 변상금 탕감과 최소사육비 지급정책을 도입해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에는 사료곡물의 수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와 협력을 통해 농가들이 힘을 모아 군산으로 직접 찾아가 사료곡물을 수송해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가협의회를 통하여 전체농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사육농가들이 육계 계열화사업의 파트너로서 위상이 세워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생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장창훈 회장

하림사육농가협의회는 농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나아가 (주)하림과 함께 고민하는 대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문제에 대해서 경청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어 노력한다면 (주)하림과 농가의 공동 발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열주체와 머리를 맞대고 사육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계열화 사업의 두 축인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가 상생 발전하는데 임기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A** 정문성 본부장

하림사육농가협의회와 (주)하림 CEO 간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회사와 사육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는 인증농가 행사를 열어 회사의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농가협의회와 한마음 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해서 서로 맘을 흘리며 하나가 되는 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하림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최일선에 있는 농가들에게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워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